

사가정역 일대 1300가구 공공주택 복합 개발 시동

서울시 심의위서 조건부 가결
중랑구, 연내 시공사 선정키로
2028년 착공·2032년 완공

중랑구(구청장 류경기)는 최근 서울시 공공주택특별심의위원회에서 사가정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안이 조건부 가결되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돌입했다고 2일 밝혔다.

사가정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면적 7종 524-1번지 일대 2만8138.7㎡ 부지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연면적 21만3262.1㎡, 용적률 500% 이하, 지하 5층~지상 35층, 8개동 공공주택을 조성하며, 총 1300가구의 공공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공공 유형은 공공분양 886가구, 이익공유형 130가구, 공공임대 274가구로 구성된다.

해당 단지는 분양·임대 세대 간 구분을 없애 함께 어우러지는 주거단지로 조성되며(소셜믹스 방식), 복합사업계획 승인 이후 오는 2028년 착공,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구는 올해 1월 지역 내에서 추진 중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5개 모두에 대한 주민대회의의 구성을 완료했으며, 2025년 12월 복합사업계획이 승인된 용마대 인근 4개 사업지를 시작으로 올해 안에 전 사업지의 시공사 선정과 설계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류경기 구청장은 "이를 통해 중랑구 전반의 주거 환경이 단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 역할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여명 기자 yyy@sinimilbo.co.kr

식품점업소 진흥기금 용자

서초구, 최대 1억 지원키로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식품점업소와 위생 환경을 개선하고 영업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월부턴 2026년 식품진흥기금 용자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용자지원 사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지역내 식품점업소를 대상으로 하며, 예산 소진시까지 운영된다. 올해 용자 지원 규모는 서초구 1억원, 서울시 12억원으로 서초구 내의 예산이 소진될 경우 서울시 용자로 연계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원 내용은 ▲모범음식점 육성 자금 최대 5000만원(금리 연 2%,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 시설개선자금 최대 1억원(금리 연 2%,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식품점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최대 2000만원(금리 연 1%,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등이다.

백성민 기자 zini@sinimilbo.co.kr

간추린 뉴스

광진구, 설맞이 '뽕겨요·광진사랑상품권' 오늘 발행

광진구(구청장 김경호)는 설 연휴를 앞두고 구민의 소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광진뽕겨요 상품권' 6억원과 '광진사랑상품권' 100억원, 총 106억원 규모의 상품권을 일괄 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품권 발행은 설 명절을 맞아 증가하는 소비를 지역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매점 소상공인으로 연결해 매출 회복을 돕기 위한 조치다.

'광진뽕겨요상품권'은 3일 오전 10시부터 구매할 수 있다. 15%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되며, 12달 유효 20만원까지 구매 가능하다. 유효기간은 구매일로부터 1년이다.

공공매달임 '뽕겨요'를 설치해 사용할 수 있으며, 중개 수수료 2%, 인접수수료와 광고비 부담이 없는 공공매달임 기반 상품권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여명 기자 yyy@sinimilbo.co.kr

금천구도 6일 G밸리사랑상품권 150억 발행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설 명절을 앞두고 위축된 소비를 회복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오는 6일 오전 9시부터 '금천G밸리사랑상품권' 150억원을 발행한다고 밝혔다. 금천G밸리사랑상품권은 모바일 전용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판매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된다. 구는 상반기 민생경제 지원 강화를 위해 지난해 설 명절보다 발행 규모를 확대해 150억 원을 발행하기로 했다.

상품권은 5% 할인된 금액에 1인당 월 50만원 한도로 구매할 수 있다. 여기에 상품권 사용 금액의 5%를 다음 달 말 몰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페이백 이벤트가 더해져, 이용자는 최대 10%의 할인 효과를 체험할 수 있다. 페이백 이벤트는 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된다. 구는 2026년 연간 상품권 발행 규모는 총 210억원으로 계획하고 있다. 소비가 집중되는 시기를 고려해 가정의 달 5월에 20억원, 추석 명절이 있는 9월에 40억원을 추가 발행할 예정이다.

여명 기자 yyy@sinimilbo.co.kr

양천구, 5~6일 설맞이 직거래장터... 차예용품 판매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가 물가 부담을 덜고 지역 간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오는 5·6일 이들 양천한글관에서 '2026년 설맞이 직거래장터'를 운영한다.

이번 직거래장터는 전국 57개 지자체, 127개 업체가 참여한 역대 최대 규모로, 제철 과일과 수산물, 장류, 떡, 참기름, 한과 등 설 명절에 수요가 높은 차예용품과 지역특산물 약 300여개 품목을 한자리에서 선보인다.

생산자가 직접 참여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유통 단계를 최소화해, 소비자는 시종 대별 합리적인 가격으로 품질이 검증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장터에는 자매결연지인 강화군, 부여군, 완도군 등을 비롯해 남양주시(매·딸기), 평택시(매실청·함우매갈비), 남원시(곤드레밥·오곡할합) 등 지자체가 새롭게 합류했다. 지역별 특색이 살아 있는 농·수·축산품 등을 비롯해, 방문객들은 전국의 우수 특산품을 직접 비교하며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백성민 기자 zini@sinimilbo.co.kr



노인일자리 발대식에 참석한 김경성 구청장(앞줄 가운데 왼쪽)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구, 올해 노인일자리 62개 사업 2240개 확정... 경험·전문성 강화

9월까지 기관별 릴레이 발대식

중구(구청장 김경성)는 올해 노인일자리 규모를 62개 사업에 걸쳐 2240개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구는 최근 '노인일자리 발대식'을 열었다.

구는 무엇보다 구와 역사와 문화는 바탕으로 주요 구정 사업에 주역이 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지역 정체성이 담긴 일자리를 발굴하는 데 집중했다.

우선, 중구시니어클럽의 '청춘스타 인형극단'은 중후구 이순신 회와 일치를 담은 '이순신 인형극'을 선보이며, 지역에 어린이를 초동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연을 진행한다.

노인들이 인형극을 통해 세대

간 소통과 역사 교육을 동시에 이끄는 중구만의 대표 문화형 일자리다.

중립동의 옛 지명에서 이름을 딴 전통주 문화 플랫폼 '악현' 사업단도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악주 유래지라는 지역적 상징성을 살려 전통주 체험과 시음, 판매를 노인들이 직접 운영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통문화 계승을 함께 도모한다.

이와 함께 구는 주요 구정 사업을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지원형 일자리를 확대했다.

대한노인회 중구지회와 '버스정류장 가꾸미' 사업은 기존 동네 버스정류장 환경정비에서 나아가, 내편중구버스 승·하차 구역의 환경정비와 질서유지까지 담당하며 구의 핵심사업을 현장에서 지

원한다.

구는 오는 3월부터 시범 운영 예정인 중구 통합돌봄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악수노년종합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통합돌봄지원단'을 새롭게 구성했다.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전문 지식을 갖춘 노인들이 참여해 건강 모니터링과 신규 대상자 발굴 등 돌봄 현장의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

이외에도 구의 노인일자리 사업은 환경 개선, 교육·복지시설 지원, 전통시장 관리, 스마트화 운영, IT 랩북 배움터 길라잡이까지 폭넓게 구성돼 있다.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신노년 세대의 경험과 전문성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중구형 노인일자리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편, 발대식은 기존 소규모 행사 방식에서 벗어나, 수행기관별 토 총 68회에 걸친 '릴레이 발대식'으로 운영된다.

지난 1월28일을 시작으로 오는 9월까지 약 1500명의 노인이 참여해 일자리 사업의 의미를 공유하고, 참여자 선서와 기본교육 등을 통해 자긍심과 소속감을 높이는 자리가 마련된다.

김경성 구청장은 발대식에서 "이순신 인형극과 악현처럼 중구다움을 담은 일자리부터 내편중구버스와 통합돌봄을 지원하는 일자리까지, 어르신이 지역의 주인공이 되는 '내편중구'형 노인일자리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명 기자 yyy@sinimilbo.co.kr

강남구, 'CES 2026' 강남관 운영 5개 유망기업 지원... 27억 투자 상담 성과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최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6'에서 서울특별시내 '강남관'을 조성해 5개 유망 기업을 집중 지원한 결과, 비즈니스 상담 206건과 투자 상담 약 186건 달(약 27억) 규모로 성과를 거뒀다고 2일 밝혔다.

구는 부스 설치부터 현장 운영, 전시 일정 관리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했다.

특히, 전시 기간 메인 무대에 출품한 강남구 스타트업 지원 품목인 '스마트한 집'을 수상해 글로벌 대에서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퍼스트해빗의 'CHALK AI'는 학습자가 AI 강사와 대화하며 공

인반 전이에서는 강남구 기업 기술 경쟁력도 돋보이기 시작했다. 퍼스트해빗과 에버엑스가 총 3개 부스에서 'CES 혁신상'을 수상했다.

퍼스트해빗은 교육용 AI 플랫폼 'CHALK AI'로 인공지능과 교육 기술 2개 부문에서 혁신상을 받았고, 에버엑스는 AI 기반 근로계약 관리 솔루션 'MORA Care'로 혁신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퍼스트해빗은 국가별 스타트업 IR 경진대회에서도 1등상인 '그랜드 어워드'를 수상해 글로벌 대에서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퍼스트해빗의 'CHALK AI'는 학습자가 AI 강사와 대화하며 공

부하는 플랫폼이다. 사용자가 질문하면 답을 보여주는 방식에 그치지 않고, 학습 흐름에 맞춰 설명과 상호작용이 이어지도록 설계한 점이 특징이다.

에버엑스의 'MORA Care'는 근로계약 관리와 재할 과정에서 필요한 안내와 점검을 AI로 지원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으로, 해외 시장을 겨냥한 사업 확장 가능성을 확인했다.

나머지 기업들도 상담과 협력 논의를 이어갔다.

▲스퀘어에서는 지라공간 테이터 기반 AI 플랫폼으로 글로벌 바이외의 상담을 마무리했고, ▲블리 테이코스에서는 여성인 전문 애프터·예측 플랫폼을 앞세워 헬스

케어 분야 접점을 넓혔다.

▲프롭트트라운은 AI 기반 2D·3D 디자인 생성 기술을 소개하며 해외 시장 진출의 발판을 다졌고, ▲텔리시스는 소방관·군인 등을 위한 웨어러블 헬스케어 제품으로 안전·헬스 분야 협력 가능성을 확인했다.

조성명 구청장은 "이번 CES 참가를 지역내 스타트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사업성과 투자 가능성을 함께 점검한 자리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전시 지원에 그치지 않고 후속 투자 연계를 이어지는 전략적 지원으로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대우 기자 nice@sinimilbo.co.kr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숨통 올해도 월세·전세이자 지원

동작구, 27일까지 320명 접수

동작구(구청장 박준희)는 청년 세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난해부터 시행한 '청년·신혼부부 월세 및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증액 지원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만 19~39세(2007~1986년생) 무주택 청년 가운데, 주민등록상 구에 거주하며 월세 또는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인가구와 혼인신고

를 완료한 신혼부부이다.

모집규모는 월세 220명,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100명 등 총 320명이다. 월세는 월 최대 20만원(최대 월 10개월간 지원)하고, 전세보증금 대출이자에는 보증금 대출 잔액의 2% 이내에서 최대 150만 원

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신청은 2월 오전 9시부터 27일 오후 6시까지 구 홈페이지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월세 및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증액 신청은 불가하다.

지원 대상자는 오는 3월6일 구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서류 제출 등 절차를 거쳐 주거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청년청 소년과로 연락하면 된다.

박일하 구청장은 "주거비 부담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청년 세대가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주거지원책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명 기자 yyy@sinimilbo.co.kr

IoT 계측기 활용 이후 소규모 건축물 안전관리

관악구, 24시간 자동 감시

이상 발생엔 일일 전송도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최근 집중호우 증가로 인한 안전사고와 노후 건축물 붕괴 위험 우려가 커져자, 중·소규모 건축물과 경사화 지역내 소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IoT 계측기를 활용한 안전관리를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구는 기존의 육안 점검만으로는 구조적 위험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데이터 기반의 안전관리 방식인 '사물인터넷(IoT) 계측관리'를 도입했다.

앞서 구는 붕괴 사고가 있었던 건물과 인접하거나, 건축물 구조 안전 점검 결과 '미흡' 판정을 받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노후·위험건축물 5곳을 추가 선정해 계측기 설치를 완료했다. 이로써 구는 올해 총 14개 건물에 대해 사물인터넷(IoT) 계측관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사물인터넷(IoT) 계측관리는 건축물에 부착된 계측기를 통해 건축물의 기울기, 균열 변화 등 구조적 변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측정된 데이터를 통해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송해 관리하는 방식이다.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모바일 앱이나 웹페이지로 구현해 계측관리 대상인 구조물 상태 정보와 시각화된 변위 데이터를 제공한다.

일체치를 초과하는 이상 변위가 발생하면 구청 관계 부서와 건물 소유주에게 즉각적으로 위험 감지 알림이 전송돼 신속한 점검 확인과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사람이 상시 점검하기 어려운 위험건축물에 대해 24시간 자동 감시체제를 구축해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하"라고 설명했다.

박준희 구청장은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생활 안전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민 기자 mmh@sinimilbo.co.kr

13일까지 주민소통사업 공모

중로구, 최대 300만원 지원

중로구(구청장 정문헌)가 오는 13일까지 2026년 주민소통사업 공모 참여자를 모집한다.

2월 구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지역 주제와 자유주제로 나눠 진행하며, 사업 성격에 따라 모집분야를 사업성과 투자 가능성을 함께 점검한 자리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전시 지원에 그치지 않고 후속 투자 연계를 이어지는 전략적 지원으로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대우 기자 nice@sinimilbo.co.kr

으로 한다.

두 번째는 '청년과 어르신'이 함께 성장하는 세대공감 '멘토링'이다. 세대 간 경험과 역량을 공유하며 이해하는 시간을 보내고 지역 기반한 관계망을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자유주제는 이들과 세대 간 소통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다양한 제안을 접수한다. 이 가운데 구정 정책과의 연계성과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지역에 거주·근무 중인 20 이상과 주민 또는 단체로, 마감일 오후 6시까지 구 홈페이지로 제안을 제출하면 된다.

이대우 기자 nice@sinimilbo.co.kr

중랑구, 6일까지 설 명절 대비 전통시장 안전점검

중랑구(구청장 정인홍)가 오는 6일까지 '설 명절 대비 전통시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2월 구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인파가 집중되는 전통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구민들이 안심하고 전통시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구로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서울사무지서, (주)커뮤니티비즈 등 유관기관과 함께 지난해 전통시장 7곳을 방문해 전반적인 안전관리 상태를 살핀다. 점검단은 현장에 방문해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소방, 전기, 가스 시설 등을 중점적으로 안전점검에 따라 점검을 진행한다.

점검 일정에 따라 지난해 2월에는 중소벤처기업청과, 화재보험협회와 함께 고적골북시장상가와 점검하고, 29일에는 구로시장, 가락방시장, 영방중앙시장 등을 점검했다.

백성민 기자 zini@sinimilbo.co.kr



겨울나기 성금 전달식

은평구(구청장 김기재)는 최근 글라쓰바에 음양점으로부터 '2026 희망을 맺는 겨울나기' 성금 30만원을 전달받았다. 사진은 성금전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은평구, 중장년 새출발 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모집

은평구(구청장 김기재)가 '2026년 중장년 새출발 복지자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수행기관을 오는 19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2월 구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디지털 홍보와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갖춘 인력을 선발·운영해, 은평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마케팅 컨설팅을 제공하는 일자리 연계형 사업이다.